

보도 일시	2022.3.15.(화) 석간 2022.3.15.(화) 06:00	배포 일시	2022. 3. 14.(월) 14:00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성원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안종관 (044-200-5611)

해조류 양식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과 창업기업 손잡다

- 해수부, 해조류 계약 재배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(3.15)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(사)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, (주)에이치엔노바텍과 3월 15일(화) ‘해조류 계약재배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(MOU)’를 체결한다.

(사)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는 전국 미역 생산량의 약 30%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로서, 매년 29만 톤 정도의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다. 특히,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수온, 일조량 등 최적의 조건에서 생산되는 미역을 국내 대표적인 식품기업 오투기와 동원 등에 납품하고 있다.

(주)에이치엔노바텍은 미역,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고기 맛이 나는 아미노산복합체를 추출하여 생선 연육 등을 활용해 고기 맛이 나는 대체 육류를 개발하는 신생창업기업이다. 이 기술을 활용해 2019년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 해양수산미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.

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생산자는 미역, 다시마 등 해조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고, 창업기업은 고품질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

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“이번 해조류 계약재배 양해각서 체결은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,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.”라며, “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양식수산물 계약

재배를 확대하여 어업인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해조류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
참고 1

양해각서 주요 내용

□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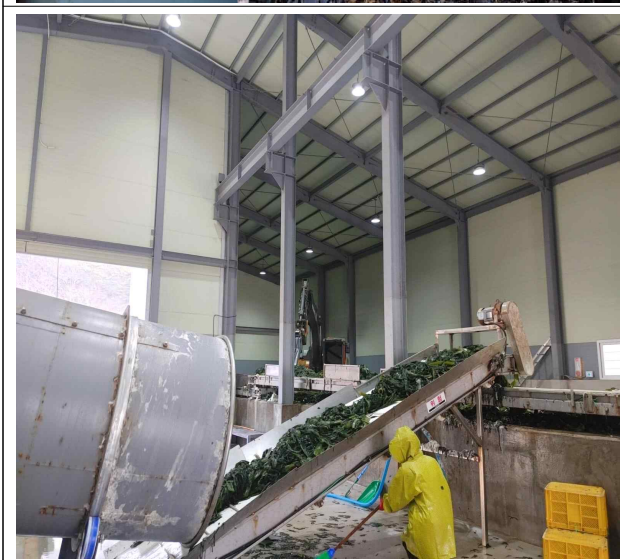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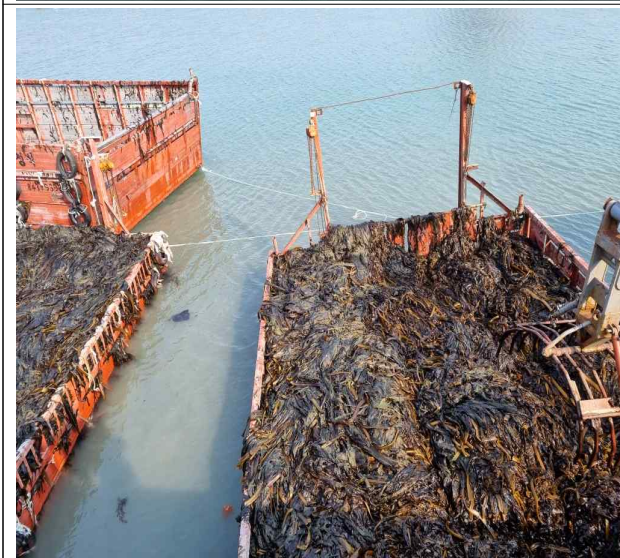
- 해조류 계약재배 등 해조류를 이용한 잠재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하고,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협력 의사를 명문화

□ 주요내용

- (협력내용) 해조류 계약재배 사업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,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
 - 해수부는 계약재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각 당사자 간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의
 - (주)에이치엔노바텍은 안정적인 해조류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‘해조류 연간 소모량’을 제공하고 (사)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는 해조류를 일정에 맞게 재배·공급
 - ‘해조류 연간 소모량’은 양 당사자가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하며,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결정
- (유효기간) 서명한 날로부터 ‘22년 12. 31일 까지
- (보안유지 의무)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내용 중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공유된 내부 정보에 대하여 보안 유지
 - 본 협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
- (기타사항)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

참고 2

미역, 다시마 양식장 사진



참고 3

(주)에이치엔노바텍 상품



해조류 기반 대체육(미트볼)



해조류 기반 대체육(햄버터용 패티)



해조류 기반 육포



해조류 기반 식물성 우유